『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6권 1호(2010년 6월) 117-139

지팡이의 모티프와 타자관계

박 진 훈

I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방식을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그 하나는 무력하고 상호 무관한 상태로 단순히 목전에 있는 상태(vorhanden)의 대상이며, 다른 하나는 잠재 행동으로 즉, 필요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구와 도구로 있는 상태(zuhanden: 가용[可用]) 의 대상이다. 하이데거에서 존재론적으로 앞서는 대상은 바로 이 두 번째 차원, 즉 '사물들'을 우리가 가용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제임슨 240). 이와 같이 하이데거는 현존재(Dasein)라는 이름으로 '존재'[대상]가 인간과 맺는 관련을 중시한다(이기상 63). 하이데거의 사물론에 이어 제임슨 역시 사물을 "인간행동에 속해 있는 부호로 존재한다"고 본다. 그는 인간이 "사물을 일단 도구로 파악하며, 그 연후에야 비로소 관조적이거나 과학적인 지식의 정적 대상으로 파악한다"(제임슨 240)고 하면서 '사물의 도구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조이스의 텍스트에 나타난 사물들은 단순히 인간의 도구화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텍스트에서 사물들은 개인적인 행동과 의식의 부호로 존재하며, 그 이미지는 매우 '다변화'(diversification)되어 있다. 달리 말하

면 이들의 이미지는 매우 다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조이스의 주제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이다"(Tindall 131). 조이스에게 "사물은 전 우주를 두 개의 부분, 즉 물체(object)와 물체가 없는 빈 공간으로 분할하는" 존재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는 작품에 나타난 사물들을 사회적 통념 등에서 벗어나 "하나의 물체의 완전함"(*SH* 212)을 식별할 수 있는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이스의 창작방법은 '흩어진 재료들'을 상상력으로 흡수하는 엘리엇(T. S. Eliot)의 방법과 아주 흡사"(Ellmann 250)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흩어진 재료들'이란 인간과 동물・식물 그리고 사물 등 작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태를 일컫는다. 조이스는 이 흩어진 재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며 이것들을 제각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주체로 표현한 점에서 다른 작가와 차별화된다.

그러한 차별화 중 하나는 조이스의 사물관이 낭만주의 시인들의 '낭만적 상상력'과 다르다는 점이다.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나 콜리지(Samuel T. Coleridge)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이 상상력으로 동식물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에 대한 찬미나 개체와의 감정적 일체화였다. 이들에게는 개인의 미래를 밝혀주는 유기적 관계가 거의 없다. 그러나 조이스의 텍스트에서는 동식물이나 사물들이 개인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체'로 등장한다. 이런 까닭으로 조이스의 작품에서 미물이나 무생물들이 작품의 주제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별화는 특히 『율리시스』 15장 「키르케」("Circe")에 잘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주변부(marginality)로 소외됐던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approbation)받고 있다. 이러한 주체인정은 우리가 대상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관심에서 출발한다(Smith 15). 모든 '대상'을 주체로 인정하는 가치관은 삼라만상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대상에 대한 인정을 거쳐 타자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조이스의 작품들에 표현된 동식물과 사물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약하다. 예를 들어 사이드(Edward Said)와 바바(Homi Bhabha)와 같은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은 타자를 주체와 대비되는 열등한 대상으로 보았다. 이들은 또한 타자의 개념을 식민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하관계의 인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는 사물들을 인간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된다. 그러나 조이스의 작품에서 주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텍스트에서 개인과 생물・사물들의 '연관성'은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 되었으며 많은 상징과 패러디를 함축한다. 이러한 패러디들은 "인식하지 못한 특성들"(unrealized qualities)을 인식하는 특성들로 바꾸는 인식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조이스는 현상 그 자체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Benstock 202).

이런 관점에서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사물, 그 중에서도 막대기에 나타난 모티프를 중점으로 조이스의 타자관을 논하고자 한다.

II

조이스의 텍스트에 나타난 동물은 물론 사물들 역시 역사, 사회, 문화 등을 함축한 유기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물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전체의 앞뒤참조(cross-indexing)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세심한 과정"이 필요하다(Booker 99-100). 그만큼 작품 상호간의 연관성, 즉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각 텍스트에서 모티프의 부수적인 반응들은 상징적으로 주인공의 자의식 몰락과 성적 피해의식, 그리고 타자관계 등에서 복잡한 상호연관성을 강화시킨다. 이런 연유로 사물들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 파악에서 다음과 같은 틴덜(William Tindall)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 조이스 작품들에 나타난 모든 사물들이 생산적인 의미, 즉 "상징의 수많은 변용"(*P* 193)을 띠고 있다. 이 사물들(차, 모자, 비누, [지팡이] 등)은 부분들을 조합하게 하고, 의미들을 모으고, 전달하고, 퇴적하는 "모티프" 혹은 "반복해서 제시되는 이미지"로 나타나 있다. (Tindall 131)

그러나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모든 사물이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의미를 띠는 것은 아니다. 사물들의 일부는 "수수께끼의 모티프"로 작용한다. 이 말은, 어떤 사물은 틴덜의 "반복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창조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어떤 사물이 단지 반복적이고 회상적 이미지로 머물 수도, 혹은 사회적 공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미지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들의 연관성과 상징성을 탐구하는 작업은 조이스의 텍스트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먼저 '회상적 이미지'를 띠고 있는 사물들을 『율리시스』에서 살펴보자. "겨우살이 나무"(mistletoe)는 블룸(Leopold Bloom)과 조시 포웰(Josie Powell)이 총각과 처녀 때 사랑을 나누던 곳(*U* 15.463)을, 그리고 "무어의 담"(Moorish wall)은 몰리(Molly)가 멀비(Henry Mulvey)한테 최초로 키스를 받은 곳(*U* 18.769-70)을 회상하게 한다. 이와 같이 "겨우살이 나무"나 "무어의 담"은 '파리의 교미' 장면(*U* 8.896)처럼 단순한 '대상'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이 물체들은 개인의 회상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개인의 회상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물들은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폭이 좁다.

위의 예들에서 추론할 수 있듯, 어떤 사물이 회상적 이미지로만 머문다면 이 사물들은 '사적이며 과거 지향적'인 기표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기억이나 추억의 편린에 머물기 쉽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즉, 미래를 향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힘이 약하다. 반면에 창조적 이미지의 사물들은 개인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 그리고 타자들과의 미래까지 암시하는 모티프다. 이 모티프들은 당연히 사적인 기억을 초월하며 타자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들은 또한 개인적 자의식의 표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들은 개인의 기억 속에 묻혀 있는 이미지가 아니다. 이들은 사회적 현상을 대변하는 대체물이며 또한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유기체로 작용한다.

조이스의 작품에는 개인과 유기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물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향수'가 그 중 하나이다. 블룸과 편지를 주고받는 마사(Martha)가 블룸의 아내는 무슨 향수를 쓰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U* 5.258; 5.500; 7.230; 11.688-89)이나 블룸이 몰리를 위해 오렌지 꽃물(orangeflower water) 향수를 사는 장면(*U* 5.491)에서 나타나듯, 이런 향수는 과거의 기억에 갇힌 '회고적 객체'가 아니다. 이는 개인(마사)과 타자(몰리)를 묶어주는 연결고리이며, 아울러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인적 특성을 알려주는 매체이다. 그래서 『율리시스』에서 향수는 창조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유기체적 사물이다. 타자에 대한 동일시를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된 향수와 같은 사물은 상호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어떤 사물이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해주는 유기체로 작용할 때, 이 물체는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재창조된' 주체가

된다.

위와 같이 사물의 모티프를 개인의 회고적 대상과 타자들과 창조적 관계의 매개체로 대별할 때 이러한 구별이 잘 나타나는 사물 중 하나가 '막대기'(stick)이다. 막대기 혹은 지팡이의 뜻으로 쓰인 단어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층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것들은 주로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상징물이다. 개인적인 경우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도구, 타자의 폭력을 예방하는 용도, 혹은 타자에 대한 폭력의 기구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집단적인 것은 점쟁이 등의 사회적 권위의 상징물, 경찰관의 곤봉(truncheon)처럼 공권력의 폭력성(*U* 8.408; 15.1203)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막대기(지팡이)는 이러한 기표들보다 훨씬 다층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막대기의 이미지는 폭력의 도구나 개인적 권위의 상징은 물론, 빛을 갖다 주는 선각자의 권능, 신부의 부당한 매질, 남성성(Phallus)의 상징, 춤추는 도구 등으로 다층화 돼 있다. 이러한 기표를 대별하면 막대기는 자기방어용 기제, 권위와 권능의 상징, 폭력적 도구, 타자와 융화하는 매개체 등으로 나타나 있다.

우선 막대기가 자기 방어용의 모티프로 쓰인 경우를 살펴보자. 막대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영웅 스티븐』(*Stephen Hero*)이다. 이 텍스트에서 거지는 쫓아오는 아이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자기 방어용으로 막대기를 사용한다. 이 막대기는 자기 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인 예이다(*SH* 243). 또 다른 예는 『더블린사람들』(*Dubliners*)의 「참혹한 사건」("A Painful Case")에서 더피(James Duffy)는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사귀고 있던 시니코 부인(Mrs Sinico)과 헤어진다. 그러나 그는 시니코부인의 자살 소식을 들은 후, 삶에 지치고 외로운 심정을 "개암나무 막대기"(hazel stick)에 빗대어 표현한다(*D* 100). 이는 개암나무의 수꽃이삭 2~5개가 가지 끝에서 축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심정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거지와 더피의 예에서 '막대기'는 자신의 내면적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표상화 한다. 이러한 막대기는 타인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기표이며, 거지와 더피가 타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더피의 '막대기'는 타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개인적 '도덕성 수호'의 무가치성을 나타낸다. 달리 말해 작가는 더피의 삶을 통해 타인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유대감'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더피는 이기주의적인 성격 탓에 타자에 대한 측은지심(compassion)만 있을 뿐, 타자와 공감하는 연민(pity)이

나 열정이 없다. 스미스(Adam Smith)는 “동정심의 종류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 매우 활기찬 방식으로 느끼는 감정인 연민 혹은 측은지심이 있다”(3)고 설명하지만, 필자는 연민과 측은지심은 다르다고 본다. 측은지심이 사고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라면, 연민은 측은지심보다 더 행동적인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평소 연민이 부족한 더피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거지와 더피의 막대기가 타인들과 단절된 삶의 기표로 나타난 반면, 타인과의 소통에서 자신의 권위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된 막대기/지팡이도 있다. 로마의 점쟁이들은 점을 칠 때 장대지팡이(rod)를 사용한다(*U* 3.410-11). 이 장대지팡이는 물론 점쟁이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 것은 또한 신의 권능을 위임받아 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신의 권능을 전달하는 매개체는『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스티븐 데덜러스(Stephen Dedalus)가 도서관 난간에 서서 생각하던 지팡이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 상황에서 지팡이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상징을 띠고 나타난다(*P* 224). 그러나 이런 이미지는 종교적 지도자 코피 신부(Father Coffey)에게서 깨진다. 디그넘(Dignam)의 장례식에 온 코피 신부는 “코와 입 언저리가 너무 크고 두툼하게” 생겼고, 옆구리가 터질 만큼 배가 나온 “두꺼비같은 배”와 “두꺼비 눈”을 닮은 모습으로 사제로서의 위엄을 찾기 힘든 인물이다(*U* 6.591-605). 그가 끝에 꼭지가 달린 지팡이를 소년의 들통에서 뽑아 디그넘의 관 위에 흔드는 동작도 결코 엄숙하지 않으며, 성수를 뿌리는 동작도 엄숙하게 치러지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단지 “졸음을 흔들어 버리려고”(*U* 6.621)하는 행동으로 폄하되고 있다. 코피 신부는「키르케」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도 사제로서의 권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 그[존 오코넬]의 곁에는 두꺼비 배를 하고, 목이 삐뚤어진, 전속 사제 코피 신부가, 하얀 성의(聖衣)에, 물들인 비단 침모를 쓰고, 양귀비꽃으로 꼬아서 만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졸리는 듯 서 있다.)
>
> 코피 신부
>
> (하품을 한다. 이어 목쉰 소리로 노래한다) ‘나미네. 야곱. 보비스꾸이뜨스. 아멘. (하느님의 이름으로. 야곱. 보비스큇. 아멘.) (*U* 15.1237-42)

그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양귀비꽃으로 꼬아 만든 것인데, 이 지팡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꿈의 신 모르페우스(Morpheus)를 상징(Gifford 469)한다. 이 장면에서 코피 신부의 지팡이는 결코 신부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아니다. 조이스는 코피 신부의 지팡이로 아일랜드 신부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를 해체해 버린다. 코피의 지팡이는 그가 졸리는 듯 서서 하품을 하며 성구를 읊조리는 모습에서 사리에 어두운 몽매한 사람이 쥐고 있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을 뿐이다. 코피 신부의 지팡이를 통해 종교적 권위는 언행의 일치에서 나오는 것이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암시하고 있다.

다음은 막대기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인 경우들이다.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막대기가 폭력의 도구로 나타난 예는 대별해도 십 여 가지가 넘는다. 일반적으로 몽둥이(cudgel)는 주인이 "거칠게 으르렁거리거나 발작적인 동작"을 하는 "야만스런 동물"을 다스릴 때 사용된다(*U* 15.201-05). 그러나 막대기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도구가 된 경우도 많다. 먼저 『더블린사람들』의 「우연한 만남」("An Encounter")에서 괴팍한 노인의 지팡이는 지팡이가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아이를 때린다거나 학교체벌의 폭력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에블린」("Eveline")에서 에블린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집안으로 몰아넣을 때 사용하는 오앗나무 지팡이(balckthorn stick)는 지팡이가 언제든지 처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짝패들」("Counterparts")에서는 "마비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패링턴(Farrington)"(김철수 17)이 지팡이로 어린 아들(Tom)을 무자비하게 때린다(*D* 86). 이러한 막대기가 『초상』에서는 헤런(Heron)이 친구들에게 스티븐을 공격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가는 지팡이"(thin cane, *P* 86)로도 쓰였다.

> -점잖게 굴어! 헤런이, 스티븐의 다리를 지팡이로 내리치면서, 소리쳤다. 그것은 그들[Nash, Bolland] 의 공격을 위한 신호였다. 내쉬가 그의 양팔을 뒤쪽으로 비트는 동안, 볼란드는 하수구에 굴러다니던 기다란 배추 뿌리를 움켜쥐었다. 지팡이로 내리치고 매듭진 배추 뿌리에 얻어맞아 몸을 비비적거리며 걷어차면서, 스티븐은 가시가 있는 철조망 울타리에 등을 떼밀리고 말았다. (*P* 86)

이러한 다양한 예들은 막대기(지팡이)의 내재된 폭력성을 말해준다. 이 예들

중에서 특히 「짝패들」의 패링턴과 스티븐의 지팡이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은 함의를 내포한다.

「짝패들」에서 패링턴의 지팡이(*D* 86)는 실패한 '모방자의 폭력'을 상징한다. 패링턴은 직장과 술집에서 "굴욕감, 좌절, 분노의 감정을 반복해서 겪는다"(Lloyd 128). 그는 직장에서 서류 때문에 사장에게 수모를 겪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심한 굴욕감을 느낀다. 그러다가, 데이비 번 술집(Davy Byrne's)에서 사장의 어투를 흉내 내며 잠시 영웅이 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멀리건 술집(Mulligan's)에서 또 수모를 겪는다. 패링턴은 팔씨름에서 애송이 웨더즈(Weathers)에게 두 번씩이나 져서 "자신과 민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Lloyd 129). 그는 분노를 삭이려고 애쓰면서 집에 와보니, 불은 꺼졌고 아내는 밥도 차려놓지 않고 성당에 가버렸다. 이에 더 화가 난 패링턴은 자신의 분노를 보상받으려는 듯 어린 아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불을 꺼뜨렸다는 구실로 문 뒤에 세워둔 지팡이(walking stick)로 자식의 허벅지를 무자비하게 때린다. 그는 도망가는 아들을 쫓아가 잡아서 때릴 정도로 잔인한 아버지다. 이런 행동은 삶에 지치고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울적한 심정을 대변한다(*D* 85-86). 패링턴의 이런 폭력은 "아버지들이 사무실에서 당하는 압제에 대한 반응(response)이 집에서 자식의 구타로 이어진 악행이다"(Kiberd 390-91). 이런 면에서 「짝패들」에서의 지팡이는 아이의 건전한 사회화를 말살하는 도구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려서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은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내재화된 폭력이 사회화의 척도가 되곤 한다는 사실이다.

지성인으로 대표되는 스티븐의 경우도 어린 시절 경험한 폭력을 사회화의 척도로 사용한다. 이 때 몽둥이는 처벌을 상징하는 물건이 된다. 타자관계에서 지팡이(막대기)가 내재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경우는 패링턴의 경우처럼 주로 개인적인 좌절과 소통의 부재에서 오며, 이와 같은 소통의 부재는 스티븐의 예에서도 잘 드러난다. 스티븐은 『초상』에서 오만과 욕망의 기질 때문에 정신적으로 타인들과 소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들과의 소통을 거부한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여러 면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의식·무의식적으로 드러낸다. 스티븐의 내재된 폭력성은 『율리시스』에서 그가 지팡이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 행위, 어린 학생들에게 제국주의의 역사관을 주입하는 수업, 그리고 그가 린치(Lynch)와 함께 여성을 쫓아가는 개(하운드)로 형상화 된 장면 등에서 보여 진다. 스티븐은

3월 22일 일기에서 린치와 자신을 병원 간호사인 “한 마리의 암소 뒤를 쫓는 야위고 굶주린 두 사냥개들(greyhounds)”로 묘사하고 있다(*P* 270). 간호사의 뒤를 쫓는 사냥개는 폭력적인 이미지를 띠고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스티븐의 폭력성과 그의 육체적인 타자 멸시를 잘 드러낸다.

첫째 스티븐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지팡이로 타자를 말살하려 한다. 이는 스티븐의 의식 속에 폭력성이 내재돼 있음을 의미한다. 스티븐은 어린 시절 여러 사람들－웰즈(Wells), 친구들, 돌란 신부(Father Dollan) 등－의 폭력에 시달렸으나 그가 그것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폭력의 희생자였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경험한 폭력은 그의 삶에 깊게 투영되었으며, 스티븐의 내재된 폭력성은 자신의 권능의 물푸레나무 지팡이(ashplant)를 실내장식품을 부수는 도구로 전락시킨다.

스티븐은『초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테니슨 경(Lord Tennyson)을 배척하고 바이런(Byron)을 옹호하다가 친구들(Heron, Nash, Boland)에게 구타당한다(*P* 86). 또한『율리시스』에서도 영국 병사 콤턴(Private Compton)에게 자신과 숙녀를 모독하고 친구(Carr)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얻어맞는다(*U* 15.4373-775). 그래서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은 스티븐을 주로 “폭력 혐오자” 혹은 제국주의자 영국인에게 멸시받는 열등한 존재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스티븐이 보여주는 ‘폭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스티븐은 그가 저항하고 전복하려 했던 제국주의적 폭력성을 여러 곳에서 재현한다. 먼저 살펴 볼 폭력은 “물푸레나무 지팡이”로 타인의 소중한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스티븐은 자신을 예언자로 상징해주는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지팡이를 기물을 부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다.

스티븐의 지팡이가 모세의 그것처럼 우매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폭력의 도구로 변질된 사실은 그의 타자관이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이런 상태에서 스티븐은 자신의 지팡이로 홍등가의 장식품 샹들리에를 깨뜨린다.

스티븐

‘노퉁(마도여)!’

(그는 두 손으로 물푸레나무 지팡이를 높이 쳐들어 샹들리에를 쨍그랑 깨어 버린다. 시간의 검푸른 마지막 불꽃이 뛴다. 그러자 잇따른 어둠 속에, 모든 공간의 폐허,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유리 그리고 넘어지는 석조 건물이.) (*U* 15.4242-45)

이 장면은 스티븐이 어머니의 유령과 싸우고 난 직후의 모습이다. 그는 고함을 치면서 벨라 코헨(Bella Cohen) 방의 샹들리에를 깨뜨리고 뛰쳐나간다. 스티븐이 타인의 샹들리에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런 폭력은 그가 평소에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모든 폭력을 경멸했던 태도에 비춰볼 때 옳지 않은 행동이다. 스티븐의 이 행동은 오히려 그의 사고와 행동의 불일치에서 나타나는 '언행의 잡종성'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그의 폭력적 행동은 폭력을 경멸하던 그의 의식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스티븐은 피식민자의 '모방적 양가성'의 부정적인 형태, 즉 타자말살의 의지를 육체적으로 표출한다. 달리 말하면 그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제압하려는 제국주의적 폭력성을 재현하고 있다.

둘째 스티븐의 폭력성은 학생들에게 제국주의 역사관을 주입시킨다. 스티븐의 몸은 클롱고우즈 초등학교(Clongowes Wood College)와 벨비디어 칼리지(Belvedere College) 시절에 받은 교육으로 인해, 영국인의 역사・문화 그리고 폭력까지도 '육화'(incarnation)된 상태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으나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하여 『초상』과 『율리시스』에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각인된 제국주의적 언행을 무심코 재현한다. 스티븐의 이 언행은 멀리건(Mulligan)이 스티븐을 부르는 호칭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다.

킨치, 겁쟁이 제수이트 교도! (*U* 1.8)

냉혈동물. (*U* 1.92)

뭔가 모를 악성이 자네 속에 있어. (*U* 1.94)

지긋지긋한 시인아! (*U* 1.134)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골이 난 칼리번. (*U* 1.143)

멀리건이 스티븐을 “냉혈동물,” “뭔가 모를 악성이 자네 속에 있어,” “골이 난 칼리번”이라고 규정한 지적처럼, 스티븐의 의식 속에는 추악하고 야만적인 칼리번의 기질과 냉혈동물과 같은 제국주의적인 악성이 잠재해 있다. 이 잠재의식은 돌키(Dalky)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학창시절에 그토록 경멸했었던 폭력을 재현하게 한다.

돌키 초등학교에서 스티븐은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신부들의 오만함과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는 언술을 무의식중에 체득했음을 보여준다(*U* 2.54-60). 교육자로 변신한 스티븐은 선생의 신분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스 왕 피로스(Pyrrhus)의 전투장면에 대해 질문한다. 그는 신부들한테 배운 제국주의의 역사관을 주입하는 교육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한다. 스티븐은 신부들처럼 학생들에게 전쟁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신부들은 스티븐에게 제국주의 영국의 장미전쟁에 대해 수업을 했는데(*P* 8-9), 스티븐은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스 왕의 전투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는 블래마이어(Harry Blamires)가 스티븐을 “영국인 ‘주인’의 법정에 있는 아일랜드인 ‘광대’”(9)라고 표현한 것처럼 스티븐이 식민지인의 양가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스티븐이 출근하는 학교의 교장(Mr Deasy)이 친영파라는 사실은 그가 싫어하는 제국주의의 역사와 문화 등을 가르쳐야 하는 처지임을 알게 한다. 클롱고우즈 시절 영국의 역사를 무의식적으로 체득한 스티븐은, 이제 침략과 정복으로 점철된 그리스 역사를 가르친다. 이러한 현실은 스티븐이 어릴 때 체득한 ‘폭력으로 점철된’ 제국주의의 역사관을 조국의 학생들에게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가능성은 그가 어린학생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형태로 재현된다. 스티븐은 역정을 내면서 책으로 어린 학생 암스트롱(Armstrong)의 어깨를 찌른다(*U* 2.30). 이 책은 스티븐에게 바로 돌란 신부의 회초리(pandybat)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매개체이다.

스티븐은 돌란 신부에게 부당하게 매질당한 사건(*P* 48-61)과 웰즈가 자신을 도랑에 빠뜨린 무력사용(*P* 7)을 결코 잊지 못할 만큼 폭력을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며 언어적 폭력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한다(*U* 2.54-60). 아울러 스티븐이 폭력을 사용한 후 후회하는 모습이 없다는 사실은 자신의 폭력에 이미 타당성을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그는 바바가 주장하는 식민지인의 ‘부정적 양가성’을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스티븐이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혼성)모방한 행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폭력적 행위를 잔모하메드(Abdul JanMohamed)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행위는 "주도적 단계"라기보다 권위를 지키겠다는 "헤게모니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JanMohamed 59-87; Ashcroft 133, 233 참조).

막대기가 위와 같은 개인적인 도구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인 기표로 사용된 경우는 경찰관의 곤봉과 영국인 카아와 콤튼이 지니고 다니는 곤봉(swagger)이다. 이들의 곤봉은 제국주의의 폭력적 내재성을 대변한다(*U* 15.48). 이러한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포악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막대기는 농노들에 대한 폭행의 도구(whip)로 나타나기도 한다(*U* 12.1351). 이렇게 정치적 위계질서와 복종을 강요하는 막대기는 타자의 자아를 말살하려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그러나 막대기가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막대기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조차 막대기/회초리는 결국 타자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더블린사람들』의 「위원실의 파넬 기념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에서 재크(Jack) 노인은 자식을 훈육하는 매개체로 막대기를 회상한다(*D* 107). 그러나 이 막대기는 버릇없는 자식의 등을 내려치는 폭력의 도구일 뿐, 상호소통과 교류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막대기가 '가정 폭력'의 도구로 사용된 예는 특히 『더블린사람들』에서 많이 나타난다.

> 몇몇 다른 이야기들—「작은 구름」("A Little Cloud"), 「짝패들」, 「위원실의 파넬 기념일」, 「우연한 만남」, 「에블린」—에서, 아이들은 가정적 분노, 사회적 분노, 혹은 성적인 남용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처해있다. 『초상』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훈육성의 교정책으로 왜곡되게 해석된 육체적 처벌이 더 자주 나타난다. (Lloyd 167-68)

로이드의 지적처럼 "『더블린사람들』에서 거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나 친지들에게 폭행을 당한다"(Attridge 167). 예를 들면 「에블린」에서 딸 에블린은 19살이 넘었음에도 온갖 욕지거리를 참아야 하고 이따금씩 아버지의 폭력에 위협을 느끼면서 가슴 두근거리는 증세를 안고 살아간다(*D* 30). 「짝패들」에서 패링턴의 어린 아들 탐은 아버지에게 단지 저녁식사를 위한 불을 꺼뜨렸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심하게 난타 당한다(*D* 86). 이와 같이 에블린의 아버지와 패링턴의 "어떤 절제도 없이 분노하며 화를 내는 무례함과, 폭력을 사용하는 야만성(brutality)은 가장 증오스러운

것이다"(Smith 27). 이렇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사회적 좌절감과 성적인 학대"를 동시에 겪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화나 타자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더블린사람들』에서 아이들을 처벌하는 도구로 쓰인 막대기들은 모두 아버지의 '잠재적 폭력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이들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매 맞는 아이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어떤 형태의 반항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버지의 폭력이 이미 그들에게 '육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폭력의 육화는 아일랜드 아이들의 비참한 삶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이 육화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 역시 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초상』에서 돌란 신부가 어린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사용한 회초리는 교육자의 오만함과 타자 불인정의 전형을 보여줄 뿐이다. "황실용의 철갑상어"(Sturgeon, *U* 8.880)가 동물들에게도 정치적 위계질서가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주면서 지배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사용되듯, 신부들의 회초리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무시하며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도구로 사용된 예이다. 작문을 하지 않는 스티븐에 대해 아널 신부(Father Arnall)가 안경을 깨뜨려 면제를 시켜줬다고 했음에도, 돌란 신부는 "낡은 속임수야! 당장 손을 내놔!"하면서 스티븐의 손을 때렸다. 돌란 신부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은 스티븐은 신부의 행동을 "지독히도 비열"하고, "[정말] 부당하고 잔인한 일"이었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다(*P* 50-53).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도구로 쓰인 막대기는 결코 상호소통을 허락하는 매개체가 아니다. 단지 타자 말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조이스의 작품에 나타난 폭력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해자만 일방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특히 어린 아이들은 대항하거나 반격 한번 못하고 언제나 그대로 당하기만 한다. 이들은 또 결코 화해하거나 타협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일방적인 폭력은 피해자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트로마를 야기할 뿐이다.

막대기의 모티프에서 살펴 볼 또 다른 주제는 남성성이다. 막대기가 남성성을 상징하는 예는 특히 『경야』의 16장("The Bedroom")에 잘 나타나 있다(*FW* 566.33-35; 567.7). 여기에서 막대기(pole)는 신체의 일부를 상징한다. 그렇다고 단

순하게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막대기는 남성의 가부장적 기표로 사용되는 남근을 상징한다. 이 남근은 머케이브(Colin MacCabe)의 지적처럼 단어와 사회적 의미의 상관관계에서 "특권화 된 기표" 중 하나다. 이 기표는 주체가 "언어와 욕망" 속으로 들어가는 사회화로 이해될 수 있다(149). 그러므로『경야』16장에서 막대기는 HCE의 남근을 상징하며 또한 남근으로 대표되는 사회에서 여성(Issy)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묵시적으로 보여준다.

> 그런고로 그대 무엇을? 그대는 암나귀가 두려운고? 약탈자의? 나[이사벨]는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의 것을 잃어버렸는지나 않은지 두려운지라(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지만), 이들 야폭한 부분을 존경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타종인고! 얼마나 온통 조모스럽고 짐승 같은! 그대 무엇을 견시(堅視)하는고? 나는 견시나니, 나의 불운 앞에 그토록 빳빳한 지시봉을 보아야하기 때문인지라. 사다리의 신에 맹세코, 어째서 폐경도! 그대는 그러면 원초전설을 읽을 수 있는고? 나는 실무의 증부로다. 동의갈대! 단 리어리의 오벨리스크까지 록 경유 8무 마일 무펄롱 거리; 중앙우체국까지 수천하사의 인내보; 웰링턴 기념비까지 반 리그 거리오향; 사라교까지 그를 봉하기 위해 족히 사냥 109리: 곶까지, 향사의 1야드. (*FW* 566.30-67.4, 밑줄은 필자)

이 장면에서 이사벨(Isabel), 즉 이씨는 아버지의 남근을 본 후 남성적 사회에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생각한다. 그녀는 이 사회가 가부장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여기서 가부장적 기표로 쓰이는 HCE의 "지시봉"은 도시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다. 이 지시봉이 도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벨리스크, 중앙우체국, 웰링턴 기념비, 사라(Sara)의 다리, 그리고 곶으로 이어진다. 시내에 늘어선 높은 건물들과 다리, 그리고 향사(yeoman)의 땅인 곶 등은 남성적인 권위－정치, 금전, 경제적 면 등에서－를 상징하는 곳이다. 여기서 영국의 장군을 추앙하는 "웰링턴 기념비"는 남성성의 정복욕(나폴레옹을 패배시킴)과 배신(아일랜드 출신) 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기표다. 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의 장군이 됐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남성적 권위에 억눌린 상황에서, 이씨는 자신의 것(정조)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이는 여성의 성적 욕망이 남성의 폭력 앞에서 항상 "준엄하게 통제 받는" 현실(*FW* 123.8-10)을 알레고리화한 것이다(MacCabe 146 참조). 그래서 남성적 위용이 묘사된 이 장면은 그 이면에 남성들

에게 억압당하는 여성들의 생활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HCE의 지시봉은 머케이브의 지적대로 "위치를 가진 자(HCE)의 욕망과, 욕망을 지닌 자(Issy)의 위치 찾기다." 하지만 이 '위치 찾기'는 근본적이며 무한정한 "양성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정'(The seim a new, *FW* 215.23) 되어야 한다(151).

막대기/지팡이의 모티프에서 살펴볼 마지막 주제는 막대기가 타자와 융화하는 매개체로 쓰인 경우이다. 맹인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가느다란 지팡이"(slender cane, *U* 8.1075)는 인간과 사물이 상호교섭의 창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막대기는 장님 소년에게 나아갈 길을 안내하며 다치지 않고 "일직선으로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이다(*U* 8.1111-12). 인간과 사물의 이러한 관계는 조이스가 추구하는 타자관과 부합한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패링턴의 지팡이가 아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매체라면, 스티븐의 "물푸레나무 지팡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

스티븐은 "생명의 나무"라는 뜻을 지닌 마가목(rowan)의 지팡이를 항상 갖고 다닌다. 그의 지팡이는 프로메테우스적 상징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그의 분신과 같다. 『초상』과 『율리시스』에서 스티븐은 자신의 지팡이를 "하느님의 점쟁이"들이 점칠 때 사용하는 '권위의 지팡이'로 인식한다: "물푸레나무가 점쟁이의 구부러진 지팡이를 생각나게 했다"(*P* 244), "나는 여기에 하느님의 점쟁이처럼 물푸레나무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다"(*U* 3.423). 이렇게 두 문장에 나타난 지팡이는 신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다(Gifford 44). 이러한 사실은 스티븐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권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권위는 스티븐이 자신의 지팡이로 세상에 빛을 뿌려주는 행동을 통해 실현된다.

> (의기양양하여) 살비 파끄띠 순뜨(인간은 구함을 받았도다).
>
> (그는 물푸레나무 지팡이를 휘둘러, 램프의 그림자를 산산이 부수며 빛을 세상에다 비산시킨다. (*U* 15.98-100)

이 때, 스티븐의 지팡이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처럼 세상에 빛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스티븐이 빛을 분산시키기는 이 행위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등을 정신적으로 부수는 . . . 기묘하게 예언자적인"(Brivic 120) 모습이다. 스티븐은 또한 [예언자적]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등갓(lampshade)을 깨뜨린다(Brivic

114). 그리하여 스티븐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선각자와 권능자의 힘을 세상에 전달해준다. 『경야』의 7장에 나타나는 지팡이도 스티븐의 지팡이처럼 전능자의 이미지를 띤다. 여기서 셈(Shem)은 자신의 "생명의 지팡이"(lifewand)를 치켜들어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한다(*FW* 195.5-6). 이와 같은 셈의 지팡이는 스티븐의 그것과 차별화되어 있다. 이 지팡이들이 '권능'을 행사한다는 점은 같다. 그렇지만 스티븐은 권능을 행하는 절대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셈은 정의를 찾아 수행하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셈의 지팡이처럼 권위의 상징인 스티븐의 지팡이는 홍등가에서 타인들의 흥을 돋우는 데도 사용된다. 이곳에서 지팡이는 스티븐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춤출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U* 15.4121-28). 그는 코헨의 방에서 지팡이를 들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흥겹게 논다. 스티븐은 "키티(Kitty)를 빙빙 돌려 린치의 팔에 안겨"주면서 조위(Zoe)와 같이 어울려 "스카이키킹(skykicking)과 함께 미들 하이킥(middle highkicks)을 하면서, 개구리춤(frogsplit)"을 추는 등 평소 싫어했던 동료 린치와도 함께 어울린다(*U* 15.4119-25). 이 장면은 스티븐이 겪고 있는 '자의식의 변환'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스티븐은 선각자적인 권위 의식과 지적인 오만함을 벗어버리고, 타인들과 흥겹게 소통할 정도로 자의식이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준다. 권위와 오만함을 벗어던진 스티븐은 홍등가에서 지팡이를 유연하게 다루면서 다층적인 타자들과 춤을 춘다. 그는 춤을 추면서 그들과 교감(consensus)하고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애쓴다. 스티븐의 변모하는 과정은 막대기가 타자 말살의 도구가 아니라 상호융합의 매개체로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감적 동일시를 보여주는 스티븐의 타자관은 레비나스의 그것처럼 "집단성으로 대표되는 무리(genus)의 논리로 환원하지 않는"(94)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은 자아를 동일체(the same)로, 같이 춤을 추는 절대적 타자들을 생산성(fecundity)의 파트너로 간주할 때 가능하다. 스티븐의 이러한 인식전환은 코크호반(Cock lake)에서 이미 예시된 바 있다.

스티븐은 자신의 권위로 생각했던 지팡이가 곧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임을 예감한다(*U* 3.454). 얼마 전까지 스티븐의 분신이었던 지팡이가 이제는 벗어나야하는 멍에로 느껴진다. 코크 호반에서 소변을 볼 때, 스티븐은 자신의 지팡이와 이별을 준비한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권위의식도 언젠가 흐르는 물처럼 떠내려가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상을 제시한다. 스티븐은 이런 각성이 있은 후 바로 "기다

리겠노라"고 말한다. 이 기다림은 지팡이를 상실한 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티븐은 지팡이를 권능의 도구가 아닌 타자들과 어울리는데 사용한다. 이는 그의 타자관이 현실적으로 변했음을 입증해준다.

그러나 그 후 스티븐은 다시 권위의식을 되찾으려 한다. 그는 "난 당신들이 모두 날 뒤따르게 할 거야"(*U* 15.4235-36) 라는 오만함을 드러내면서 기물을 파괴한다. 이 파괴적 행동은 그가 각성은 했으나 아직도 타자와 실질적으로 융화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스티븐의 지팡이가 세상에 빛을 전파하기도 하고 폭력의 도구로도 남용된 사건은 스티븐의 자의식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증거가 된다.

III

조이스의 텍스트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사물들이 개인과 사회적인 기표를 상징하는 주체로 거듭난다. 조이스는 작가의 촉각이나 상상력으로 감지될 수 있는 모든 사물/개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개개의 사물이 역사적・개인적 사건에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거나 개인의 의식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런 사물들 중에서 본고는 지팡이에 초점을 맞춰 논하였다.

텍스트에서 막대기/지팡이는 개개인과 타자들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막대기로 대표되는 몽둥이, 곤봉, 신부들의 회초리, 채찍 등은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심상을 상징하며,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사물들이다. 이 대상들은 암울했던 과거와 배회하는 현실에 대한 반추일 뿐, 미래를 향한 창조적 이미지로 변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은 타자와의 관계형성에 실패한 이미지로 존재할 뿐,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인(agent)이 될 수 없다. 막대기는 폭력의 도구 외에도 삶에 지치고 외로운 심정을 상징하거나, 개인과 정치・사회적 권위뿐 아니라 코피 신부의 장식품으로, 또한 스티븐이 춤출 때는 보조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지팡이는 개인적인 '사회화의 척도'로 쓰이기도 했다.

지팡이가 사회화의 척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타자에 대한 개인의 시각과 심정 변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개개인이 사물에 대한 이미지의 전환을 통해 사

물과 자신과의 연관성을 의식하며, 그 의식 속에서 자신과 객체를 동일시하는 과정이다. 이는 마치 마사가 몰리의 '향수'를 알려고 하는 공감대 형성과 같다. 이와 같이 향수나 막대기와 같은 사물은 개개인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체와 개인의 미래를 밝혀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물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또 개인이 사물에 대해 갖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기표를 창의적인 상호 관계발전의 도구로 변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아울러 이 사물들은 개인의 취향은 물론이고 개인의 타자관과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막대기・지팡이의 이미지는 개인의 인격적 성향과 사회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영웅 스티븐』과 『더블린사람들』에서 주로 폭력의 도구로 나타났으나, 『초상』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상징적 기표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율리시스』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규정하며 미래까지 생각해 보는 모티프로 나타난다. 이는 스티븐의 각성(*U* 3.454)과, 블룸이 해변에서 모래 위에 막대기로 쓴 글("I. AM. A.")에 제시되어 있다(*U* 13.1253-69). 마지막으로 『경야』에서는 지팡이를 통해 생명의 탄생과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기의 다층적인 이미지 변화는 개인의 타자관과 연관이 깊다. 이 연관성은 또한 조이스의 타자관을 유추하게 한다. 그리하여 올바른 타자관을 위해서 개인의 도덕성에 집착하지 말고[더피], 타인에게 폭력을 쓰지 말고[패링턴, 에블린의 아버지, 돌란 신부 등], 자신의 사회・정치적 위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HCE], 그것이 개인의 현실과 미래까지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의식과 시각의 전환을 통해 현실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인식하며, 셈과 스티븐처럼 자신의 능력을 창조적인 면으로 잘 활용하면서, 양성의 평등한 성 역할을 추구하는 열린 사고력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열린 사고력으로의 전환, 즉 상호간 바람직한 미래관계를 위해서는 주변의 사물들을 동반자로 인정해야 가능하다. 이는 주변의 사물들을 유기체적 존재로 인정하고, 이것들을 개인의 미래와 연결된 매개체로 보고 새롭게 교감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면 쉠과 스티븐의 지팡이가 생명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듯, 사물에 불과한 지팡이는 개인의 미래를 밝혀주는 생명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명체는 마사의 '향수', 블룸의 비누, 세상에 빛

을 뿌려주는 스티븐의 지팡이, 블룸과 스티븐이 마시는 '코코아' 등으로 제시돼 있으며, 이 사물들 역시 타자와의 융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밝혀주는 매개체다.

이러한 관계 맺기를 통해 조이스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생산적인 타자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이스의 텍스트에서 동식물은 물론 생명이 없는 사물들도 단순히 거기에 있는 잠재태가 아니다. 이것들은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관되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즉 인간의 동반자다. 그래서 이것들은 "신이 거리의 소음"으로 존재하듯 인간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도 나타난다. 조이스에게 개가 신의 위치로 전치될 만큼, 모든 만물은 인간과 동등한 '위대한 개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스티븐과 셈의 지팡이가 마침내 타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매체로 거듭나듯 모든 사물들은 상호관계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조이스는 사물들이 개인적인 권력과 타자말살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 융합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유기체적 관계'의 매개체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향하고 있다고 본다.

(고려대)

인용문헌

김종건.『피네간의 경야 안내』. 서울: 범우사, 2002.

_____.『율리시스 1-4』. 서울: 범우사, 2002.

김철수.「『더블린사람들』: 선진유가(先秦儒家)와 함께 읽기－「짝패들」을 중심으로」『제임스조이스저널』 14권 1호 (2008): 5-23.

사무엘 콜리지.『문학전기』(*Biographia Literaria*). 김정근 역. 서울: 한신문화사, 1995.

이기상.『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서울: 문예출판사, 1991.

제임스 조이스.『피네간의 경야』. 김종건 역. 서울: 범우사, 2002.

프레드릭 제임슨.『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 여홍상 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The Post-coloni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1997.

Attridge, Derek, and Marjorie Howes, eds. *Semicolonial Joyce*. Cambridge UP, 2000.

Benstock, Bernard. *Critical Essays on James Joyce*. Boston: G. K. Hall & Co., 1985.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Blamires, Harry. *The New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Ulysses. London: Routledge, 1996.

Booker, M. Keith. *Joyce, Bakhtin, and the Literary Tradition: Toward a Comparative Cultural Poetics*. U of Michigan P, 2000.

Brivic, Sheldon. *The Veil of Signs*: *Joyce, Lacan, and Perception*. Urbana: U of Illinois P, 1991.

Coleridge, Samuel. *Selected poetry and prose*. Ed. Donald Stauffer. Random House, 1951.

Ellmann, Richard. *James Joyce*. Oxford UP, 1982.

Gifford, Don, and Seidman. *Notes for Joyce: An Annotation of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E. P. Dutton & Co., 1988.

JanMohamed, Abdul R.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ist Literature.” *Critical Inquiry* 12.1(1985): 59-87.

Joyce, James. *Stephen Hero*. Ed. John J. Slocum and Herbert Cahoon. New York: New Directions Books, 1955. Abbreviated as *SH*.

_____.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Hans W. Gabler and Walter Hettche. New York: Vintage Books, 1993. Abbreviated as *D*.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2. Abbreviated as *P*.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et a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Abbreviated as *U*.

_____. *Finnegans Wak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39. Abbreviated as *FW*.

Kiberd, Declan. *Inventing Ireland*. Cambridge: Harvard UP, 1995.

Levinas, Emmanuel. *Time and the Other*. Trans. Richard Cohen. Pennsylvania: Duquesne UP, 1979.

Lloyd, David. “Counterparts: Dubliners, Masculinity, and Temperance Nationalism.” *Semicolonial Joyce*. Ed. Derek Attridge & Marjorie Howes. Cambridge UP, 2000. 128-71.

MacCabe, Colin. *James Joyce and the Revolution of the Word*. London: Macmillan, 1979.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94.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Prometheus Books, 2000.

Tindall, William.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8.

Abstract

The Symbolism of Sticks in Joyce's Text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Jin-Hoon Park

There are a wide range of lifeless things in Joyce's works, *Stephen Hero*, *Dubliners*, *A Portrait*, *Ulysses*, and *Finnegans Wake*. Amongst them "mistletoe" and "Moorish wall" remain a recurrent image, which indicates only personal memories. However some inanimate objects such as "perfume" and "cocoa" recre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Through these objects this thesis focuses on the sticks including the cudgel, cane, pandybat, ashplant, lifewand, etc.

The sticks represent five predominant images. At first, in the case of the beggar and Duffy, they symbolize self-defence. Secondly, as augur's and Stephen's, symbols of authority. Thirdly, as Farrington's and Priest's, tools of domestic and educational violence. Fourth example is HCE's and Issy's marks of patriarchy. Lastly, as Stephen's, medium of dancing. Through the symbols of these various sticks Joyce hints his view of 'the other' including the lifeless things.

The sticks such as cudgel, truncheon, pandybat, and whip shouldn't use for punishment or inflicting pain. Using the sticks for these purposes only efface the others who should coexist together. Especially, children who are beaten by their fathers with sticks might incarnates the domestic violence in their minds. As a result they might become anti-socialize as they become adults. So, like Stephen's dancing with the ashplant and Shem's speaking to 'the dumbs' with his 'lifewand,' it is better to restore good terms with 'others.' In order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individuals shouldn't adhere to one's own morality and social position, or beat the others. Like an ashplant and lifewand each person should be a medium of delivering life. It's better to try to acknowledge the others as organic existences

and have mutual sympathy altogether. Therefore, Joyce illustrates the lifeless things as a partner of fecundity.

■ Key words : stick, domestic violence, priest's pandybat, HCE's pole, ashplant, lifewand, organic existence, fecundity
(막대기, 가정폭력, 신부의 회초리, HCE의 지시봉, 물푸레나무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유기체적 존재, 생산성)

논문접수: 2010년 5월 20일
논문심사: 2010년 6월 2일
게재확정: 2010년 6월 15일